

2019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파견국가	미국	파견도시	캘리포니아 Redding
파견대학	Shasta College	기간	2019. 6. 24. ~ 7. 14

2. 파견대학, 수업, 필드트립 등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.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3시간 거리인 레딩이라는 곳에 위치한 대학으로 차가 없는 이상 외부로 나가기 어려움이 있지만 약 20일간의 시간 중에 외부로 안 나간 날은 없을 정도로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3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학교는 생각보다 커서 안에 큰 농장도 있으므로 현지 친구들과 친해지고 원한다면 학교 투어를 해도 좋을 듯 합니다.
수업	수업내용, 수업방법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 작년까지는 영어 수업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번부터 HTML수업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번처럼 HTML수업 3시간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총 3시간 정도의 수업으로 본 수업은 코딩보다는 교수님이 작업물의 틀을 주고 학생들이 여기에 수업에서 배운 효과들을 원하는 대로 채워 넣는 식이기 때문에 처음 코딩을 하는 학생도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.
필드트립	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(필드트립)에 대해 서술해주세요. 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여부 등 버스를 타고 외부로 나가 매일매일 새로운 활동을 합니다. 기념품을 사지 않는 이상 추가비용은 거의 없으며 추가 비용이 들었던 곳은 Whiskey Town에서 카약이나 패들보드를 빌릴 때 정도였습니다.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Shasta dam, Sierra Pacific, Waterworks 등 외부에서 진행되는 활동의 경우 물을 가지고 가는 게 좋으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.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현지 기후 및 유의점 이번에는 한 번 비가 내린 때를 제외하고 햇볕이 강한 날이 지속되었습니다. 원래 비가 잘 내리지 않다고 하기에 우산을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건조하고 햇볕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습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. 작년 수기를 통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팩이나 수딩젤을 챙기는 게 좋다고 들었지만 본래 잘 건조해지는 사람만 많이 가져가시는걸 추천합니다.
안전	현지 안전 상황 현지 학생들이 모두 착하고 배려해주었기에 인종차별 같은 건 없었습니다. 대신 길을 걸을 때 행인이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외국인 학생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. 당연히 학교 내부는 시큐리티가 있으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.
숙소	기숙사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각 층에 남자 화장실 하나, 여자 화장실 하나가 있으며 학생들은 모두 1층에 거주하였습니다. 샤워 부스는 각 화장실마다 2개로 모두 사용 중일 경우 2층의 화장실을 이용하면 됩니다. 방음이 잘 되지 않으므로 밤에 자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 배려가 필요할 듯 합니다.
식사	학교식당 (☒) 외부식당 (☐) 기타 (☐)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개인적으로 학교 카페테리아 음식이 입에 잘 맞아서 잘 먹은 편이었습니다. 단, 너무 짜고 너무 달 수 있으므로 햇반이나 김, 참치를 챙겨가는 걸 추천합니다. 공항에서 라면이 걸릴 수 있으므로 육류가 들어가지 않은 해물라면이나 신라면(신라면은 통과해주는 것 같습니다.) 등을 챙겨 가는 게 좋습니다.

교통	시내교통 관련
	외부로 나가기 위해 차가 필요한데, 외국인 학생들 중 차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놀러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70만원

항목	비용(원)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식비	20만원	
기념품비	50만원	
합계	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

학교 식당에서 주중에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음식이 안 맞아 따로 사먹지 않는 이상 식비가 많이 들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생활비를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. 샌프란시스코에서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남짓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현지 학생들과 아울렛을 가는 방법 이외에는 쇼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친구들과 친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념품을 사서 마지막에 선물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. 또한 실내는 에어컨을 틀어두기 때문에 두껍지 않은 긴 바지와 긴 팔 옷을 꼭 챙겨가야 합니다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미국 대학에서 직접 듣는 수업과 샌프란시스코 등 경험하기 어려운 기회를 잡은 듯 하여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. 학교 해외 프로그램을 다녀보면서 항상 한국에 돌아오면 아쉬운 점이 남고는 합니다. 새로운 해외 현지 경험과 아쉬운 점이 모두 모여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을 그려나가며 공부를 할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미국도 많은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Chico state Univ.



Shasta dam



Shasta College Farm



Sundial bridge



Waterworks



Whiskey town